

# ‘후후한 교사, 꿈틀거리는 아이들’

## 가정

#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

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### 설교

안녕하세요, 친구들! 혹시 이런 적 있나요?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팬히 일부러 크게 말해 본 적요? 사람들은 겉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신답니다!

예수님 시대에도 겉으로만 멋져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었죠. 이 사람들은 멋진 옷을 입고, 사람들이 “우와~” 하고 칭찬해 주는 걸 좋아했어요.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 사랑이 더 많았어요.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“그러면 안 돼요!” 하고 말씀하셨어요. 그때 성전에는 가난한 한 과부가 조용히 헌금함 앞에 왔어요.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, 작은 동전 두 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.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,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셨어요.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,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던 거예요.

친구들,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이 크고 화려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.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정성을 가장 기뻐하세요! 오늘 하루도 장난감을 나눠줄 때, 엄마 아빠 말씀을 들을 때, 기도하고 찬양할 때—우리의 예쁜 마음을 꼭 담아보아요!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 말해볼까요?

“하나님께 기쁜 마음을 드릴래요!”

충일교회 가정예배부

## 예배 순서

사 도 신 경 ..... 다 같 이

찬 송 하나님 저 왔어요 ..... 다 같 이

말 씀 봉 독 누가복음 20:45~21:4절 ..... 다 같 이

설 교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..... 설 교 자

말 씀 나 놀 ..... 다 같 이

합 심 기 도 ..... 다 같 이

축 복 기 도 ..... 부모가 자녀에게  
자녀가 부모에게

주 기 도 문 ..... 다 같 이

★ 찬송과 축복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

★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.

## 찬양

하나님 저 왔어요



☞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

## 공동기도문

사랑의 하나님,

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.

작은 것이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.

예수님처럼 바르게 보고, 바르게 행동하는 마음을 주세요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

## 말씀나눔

1.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요?

2.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겉모습일까요, 마음일까요?